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부녀회, 태극기 달기 운동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과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는 개천절과 한글날을 맞아 태극기 물결을 조성하고자 30일 회원 20여 명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국경일을 앞두고 태극기 달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후3동 태극기 모범거리인 구종목로 무삼지로 등 3km 구간에 위치한 상가를 방문해 태극기 달기를 중점 홍보하고 훼손된 국기가 게양되거나 깃면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했다.

황승일 협의회장은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 지역주민들이 다시 한번 그날의 역사 를 되새길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일섬유, 코로나 극복 성금 100만원 기탁

여의동 소재 섬유제조업체 한일섬유(대표 한준자)는 30일 여의동주민센터를 찾아 코로나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달리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 후 코로나9 장기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위기가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준자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일섬유는 면마스크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한준자 대표는 성실납세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인 ‘이름다운 납세자’ 30인 중 1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 ‘태권도 최고 경지 올랐다’

김현덕 전주시의원, 국기원에서 공인 9단 승단

전주시의회 김현덕(더불어민주당, 삼천1·2·3동) 의원이 30일 국기원에서 열린 승단식에서 태권도 공인 9단 단증을 취득했다. 국기원은 태권도 승련의 최고 경지에 오른 이들의 노력과 인내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 9단 승단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승단식을 열고 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약한 몸을 극복하기 위해 태권도와 인연을 맺었다. 대학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며 전국체전에 출전, 입상한 경력도 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태권도 수련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9단 심사에 응시해 품새, 논문, 구슬, 면접 시험 등을 차례로 통과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의 가장 높은 경지라 일컬어지는 9단에 오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태권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주위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권도 발전을 위해 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지난 7월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시 태권도 전용체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태권도 전면 확대와 국내 유일 지역문화재(전라북도)인 겨루기 태권도 보존 필요성, 태권도 종주도시로 도약을 위한 체육관 건립 추진 타당성 및 활용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윤상 기자

## 전북대 박성광·최낙환 명예교수 퇴임 기념 1000만원 기부

전북대 신창내과 박성광 명예교수(함께하는내과 원장)와 경영학과 최낙환 명예교수가 최근 모교에 1천만 원씩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에서 후학들과 씨줄과 널줄로 엮이며 평생을 보내온 그들이 후학을 위한 기금으로 희원시킨 것이다.

그야말로 대부분의 인생을 전북대에서 보낸 이들이 마지막까지 진정 모교와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을 기금에 새겨 헌신함을 전해주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지난 9월29일 박성광 명예교수와 최낙환 명예교수를 대학에 초청, 발전기금 기증식을 갖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낙환 교수는 전북대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친 전북대맨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농림



부 유통개혁위원 등 급작한 활동들도 이제는 그의 역사가 됐다. 2017년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식에서는 연구 분야에서 참스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성광 교수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졸업여행으로 3박4일 간 지리산 종주를 인솔했으며, 2021년에는 50회 이상 헌혈을 해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유공 금장을

을 수상했다. 연구 분야에서도 국가기지정연구실 사업을 통해 신장질환에 대해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겼고, 대한신장학회장으로 활동하며 신장 분야 국내 연구 발전과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난 2010년 환갑을 맞아 1천만 원을 대학에 기부하며 나눔의 환갑잔치’를 베풀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서암석 객원교수 산업포장 영예

전주대학교 서암석 객원교수(기술경영공학과)가 2021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통신분야 우수수련기술 국가유공자로 선정,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직업능력 개발과 수련 기술 장려에 공헌해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11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정보통신분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주)디인포 대표 이사원 서암석 객원교수는 장애인 기술 향상 및 이업종 교류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취업지원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은 지난 9월29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취업 진로를 정하고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일자리 알선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진옥 JB카리어 군산지부장과 취업지원 실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호원대학교는 JB카리어와 (주)휴먼제이엔씨와 협약,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을 진행하며 직업 훈련 및 구직수당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최성수 실장은 “코로나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로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병원, 직원 대상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실시

전북대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코로나9 장기화로 인한 교내근무, 강정노동 등에 지친 직원들에게 심신의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산소리숲마을(대표 조명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27일 1차수 사업을 시작으로 이달 22일까지 6차례에 걸쳐 매회 100여 명씩 참가를 신청한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소리숲마을에서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숲체험 교육사업 유튜브 영상 ‘힐링 숲’을 통해 ▲숲요가 ▲숲해설 ▲숲명상 ▲반려식물 기르기(원예치료) 등으로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섬진강  
근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The image shows a panoramic view of the Ssangjung Gangneung Park, featuring a large lake, a prominent suspension bridge, and lush green hills. The text "IMSL-GUN" and "임실군" is visible in the top left corner of the image area.